

2026.02.26 - GTS 세미나 토론문

진송옥 (Tran Tung Ngoc)

제 10 장: GEOAI AND CULTURAL GEOGRAPHY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와 풍부한 공간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서, GeoAI 는 문화지리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SNS 데이터(Instagram, Naver Blog 등)를 활용하여 도시의 장소감을 분석하거나, 일상적 문화 실천을 공간적으로 지도화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도 서구 중심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에 대한 의존은 공간적 가치의 표준화를 초래하고, 한국의 지역적·문화적 특수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서울의 도시경관이나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computer vision 을 사용할 경우, 식민지 기억, 도시 내 사회적 불평등, 근현대 공간 변화와 같은 역사·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통적 공간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eoAI 는 정성적 방법론과 공동체 참여를 결합하여 문화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해야 하며,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한국어 및 지역 방언, 시각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문화적 신식민주의'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공정한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토론 질문

1. 문화지리학 연구에서 GeoAI 와 정성적 방법,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여 '알고리즘적 타자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 11 장: GEOAI AND ECONOMIC GEOGRAPHY

발제에서는 문화시설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기존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GeoAI 기반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시설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 문화적 파급효과, 삶의 질 향상 등 비계량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량 분석만으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GeoAI 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과 입지 선정, 장기적 경제 구조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 편향과 문화적 가치의 비계량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한계로 남아 있다. 따라서 GeoAI 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대체하기보다는, 경제지리학 이론 및 정성적 접근과 결합하여 공간적 형평성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분석 틀 속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토론 질문

1. GeoAI 는 문화시설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기존 평가 방식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문화적 가치와 같은 비계량적 요소를 GeoAI 기반 분석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